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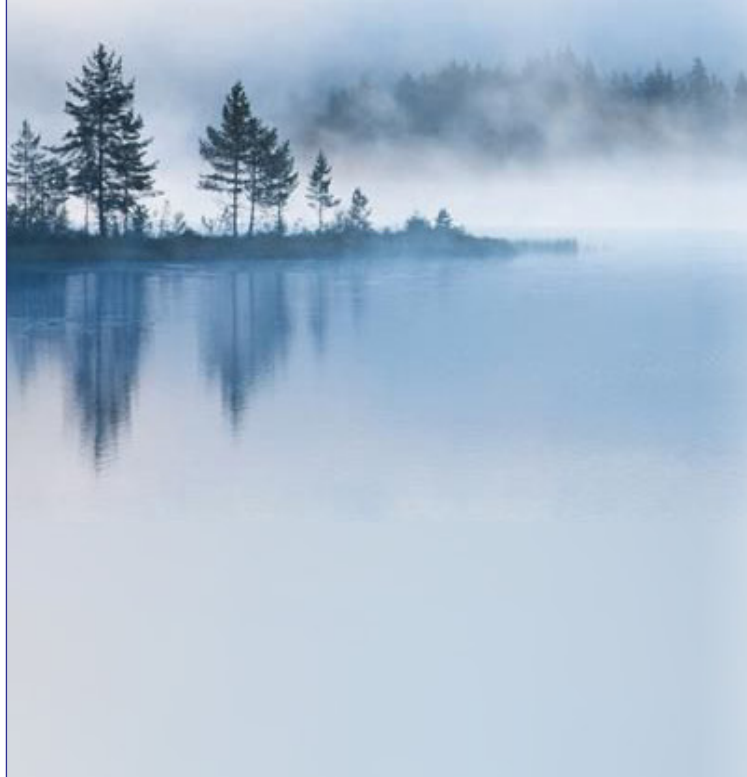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이고
그 분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분명히 이뤄주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가능성을 사장시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더욱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또한 승리의 잔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영역에 있든지
두려운 마음을 내쫓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복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 박노철



위원장에게 듣는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노문환 장로
(당회서기)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사회 이곳 저곳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일들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여 개혁을 하고 고쳐나가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기조차 한 일이 한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에서 이제 세계 10위권대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긴 하였지만 이런 경제적인 성취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의 의식수준과 도덕수준 등으로 인하여 여지없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때에 올해 우리 총회와 교회의 표어가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명예와 권력이 우선시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심과 같이 천국백성이 누려야 할 복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삶이며 화평을 이루는 삶이라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위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는 삶에, 화평을 이루는 삶에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두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여 우리들이 소속된 교회가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한결음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평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이 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협력자가 되자



서문석 장로
(기획위원장)

인생에 있어서 협력자를 얻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일입니다. 혼자 고독하게 일하는 것보다 누군가 도와 줄 협력자가 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갖는 기쁨일 것입니다. 세상일도 그럴진대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좋은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18:19)”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

다. 각자가 맡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선교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 팀이지 결코 서로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을 목사님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온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목회 협력자로서 우뚝 서고 살아 움직일 때만이 우리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2015년 한 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예배



홍성주 장로
(예배위원장)

몇년전에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서울교회에 초청하여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목회사역의 어려운 점을 나누고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간에 교제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농촌교회 목사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가장 보고 싶은 교회가 서울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

이라고 하셨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운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이요, 은혜와 고백의 대항창이므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확인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요, 가장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2015년에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크게 경건의 찬양을 드리는 해



박정선 장로
(찬양위원장)

찬양(praise)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나타내는 거룩한 노래는 경건이 최고의 주된 요소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레위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라”는 신앙적으로 모범인 자들이 찬양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운 소리 크게” 찬양하라 함은 하나님이 즐겨 기뻐 받으실 찬양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찬양지도자(지휘자)를 족속의 족장을 통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다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찬양하

는 자들이 골방에 거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하였다(역대상9:33)하였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주야로 자기 직분인 찬양만을 위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한 경건의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구별된 신분이여야 함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고귀한 신분에 속하였던 자들만이 입었던 세마포를 입어 구별된 직분을 나타내고 그 권세와 거룩함을 알렸습니다. 찬양대가 지금의 성의(聖衣/찬양대 gown)를 입고 노래하는 것은 “거룩함과 나를 들어내지 않는 겸손함”으로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경건과 정성과 겸손함과 열정을 다시금 묵상하며 희망찬 2015년에는 “즐거운 소리로 크게 경건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는 교육



이강진 장로
(교육위원장)

서울교회의 교육목표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양성입니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첫째, 교회학교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일성수와 예배시간을 잘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필요한 예배시설도 잘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영유아부터 장년소망부까지 성도님들의 평생교육에 교회는 각 부서에 적합하고 특화된 확고한 비전을 세우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고등부이하 교회학교 학부모님

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학부모 기도회, 학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연결되고 일체감을 갖는 교회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전임교역자님들을 통하여 주중에도 학생들을 상담하고 학교별 상담 및 전도활동을 통하여 전시간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새친구와 새가족이 잘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역자, 섬김위원, 그리고 교육을 받는 분들 모두가 가슴 판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교육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강건해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성숙함, 세상을 이기는 능력, 인내와 사랑의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성령의 교육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합심협력합니다.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최양진 장로
(새가족위원장)

목회방침에 따라 지난 해부터 새가족부를 확대 개편하여 새가족위원회로 발족하고 등록관리부, 새가족부, 새가족환영부, 세례교육부, 직분자양성부 5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부는 교구와 교회학교 새가족의 수료후 정식 등록교인으로 등록, 관리를 합니다. 새가족부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교회와 기독교 핵심진리를 안내하고 교육하며 양육합니다. 새가족환영부는 새가족교육을 수료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며 해당 교구가족들과 만남의 환영 오찬을 갖습니다. 세례교육부는 세례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세례만담교육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세

례를 받을 때 예식을 돕습니다. 직분자양성부는 새가족교육을 수료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 부서를 찾아 섬기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이 되도록 돕습니다.

새가족위원회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고 두려워하며 마음돌 곳 없어하는 새가족들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해 따뜻한 마음으로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삶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짧은 배움의 과정이지만 새가족들을 참된 신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도록 새가족 위원회 산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하인선 장로
(교구위원장)

2015년 새해에는 서울교회 203분의 다락방장, 33분의 교구간사, 16분의 부교구장을 비롯한 모든 교구 섬김위원들을 위한 영성 훈련과 충실한 다락방 교육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나누며 교회와 다락방 식구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성도간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다락방 모임이 되어 모든 교구식구들이 빠짐없이 다락방 모임에 참석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교구

섬김위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살펴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5월 31일부터 6월 28일 주일까지 있을 교구별 특별 찬양과 후반기 바자에 모든 교구 식구들이 다 동참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의 열심 있는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 보라!



최광성 장로
(전도위원장)

복음은 지상최대의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힘이자 무기입니다. 핵무기의 위력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이가 없다면 창고에 쌓여 있는 녹 쓴 병기에 불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다고 “와 보라” 메시아 선포로 그 동네 사마리아 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형편, 나의 모습, 나의 삶으로 인해 결코 축소되거나 소멸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도

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시급한 대명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감당 할 수 있는 전도의 큰 도구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복음이 언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복음전도에 기여이 참여하길 원하며 새해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꿈꾸고 새 노래를 부르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세계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이영기 장로
(선교위원장)

역사적인 광복 70주년, 2015년 새해를 희망이 넘치는 감사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서울교회 선교사 파송 100명의 비전을 품고 기도를 시작한 11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교회의 3대 목표의 하나인 “만민에게 전도”의 사명을 기필코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선교의 새 역사를 이루는 2015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20개국 81명의 선교사가 사역 중이고, 이를 위한 30개 기도팀과 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지구촌 미전도종족에게 선교의 사역을 활성화하고 더욱 확장하기 위해 5대양 6대주 권역 별 선교위원을 다시 위촉하여 세계선교의 전

진기지를 구축하고, 선교사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께서 분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현재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있는 “한 가족 한 선교사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여 2020년에는 서울교회 전 성도들이 동참하여 가정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2015년부터는 파송선교사가 요청하는 선교사역에 필요한 지원 요청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여 실제 선교현장에서 선교와 복음전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일치된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주님께 아뢰어, 우리 모두 주님의 지상명령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선교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자



김영준 장로
(구제위원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 크게 구령(救靈)사업과 구제(救濟)사업으로 나눌수 있으며 우리 서울교회 목표도 천국시민양성(教育)과 만민에게 전도(傳道)와 빈약한 자 구제(救濟)로 이를 균형있게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통해 대내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와 격려 또한 새로운 소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풍요속의 빈곤'이라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밝은소식 이면에는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수없이 많은 어두운 면도 있

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러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희망을 심어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질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교회는 많은 구제활동을 하였습니다. 교회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인 도움과, 끼니를 잊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는 사랑의 쌀을, 강남 구 관내의 어려운 이웃들과 새터민들에게는 사랑의 성금을, 카자흐스탄의 화상 입은 소녀 살리닷에게 수차에 걸친 수술로, 식수가 필요한 동남아와 아프리카의 여러곳에는 생명의 우물을 파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201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움의 손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움을 주며 헌신하는 구제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오직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오정수 장로
(재정위원장)

설립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에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만을 위해 한 길을 달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간 서울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헌금의 6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자 힘써왔으며 실제로 그간 항상 60% 이상 때로는 70%가 넘는 헌금을 이웃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해왔습니다. 흑간 성도님들 중에 이제 건축도 끝났으니 교회 내적으로 좀더 풍성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서울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에 근거한

바른 물질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졌다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디로 흘려보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돈이 많아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실 것입니다. 우리모두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는 이 귀한 예물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한 푼도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벗어나지 않고 교육과 선교와 구제에 균형있는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고 또 아끼되 오직 섬기는 교회가 되기위해서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심터와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이관규 장로
(관리위원장)

아름답고 편리하고 편안한 서울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교회를 선물로 받은 지도 벌써 십오년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 기록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성도님들이 내집보다 더 잘 가꾸고 살피서 한곳도 상하거나 흠이 없이 잘 보존 된 것을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옛말에 잘 달리는 말을 채찍 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잘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며 교회를 보존 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심터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성도님들의 협조와 협력과 봉사를 바랍니다.



201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당회원 일동)

사진: 손동혁 집사(편집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

다음은 이종윤 원로목사님이 한국장로신문 신년호(1월3일자)에 특별 기고한 것으로 지면상 중략한 것이다.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대한민국과 교회라는 말은 내 심장을 고동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실체인데 거기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도(正道)를 걷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때라는 판단은 자타가 공인하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감히 낙루를 먹물 삼아 졸필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대한민국

스칸디나 반도 3개국 중 면적이 가장 작고 482개 섬으로 구성된 척박한 나라 덴마크는 한때 스칸디나 반도 전부와 독일북부 심지어 영국까지도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차례의 전쟁을 겪은 후 국토가 분열되고 경제, 사회 특히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민심은 극도로 피폐해졌고 실망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구렁에서 국민들은 스스로를 저주했고 탄식하는 망국의 유령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러나 덴마크가 지옥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국심과 신앙심에 불타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 국민의 식 개혁운동을 부르짖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한 세기 만에 오늘의 지상낙원이라 할 만큼 초일류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가 그룬트비히 목사요 신학자로서 잠자던 교회를 깨워 국민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후손에게 이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물려 줄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을 제시함으로, 그를 따라 나선 교육자 폴트와 공군대령 출신인 달가스가 합세하여 “신념없는 청년을 배출시키는 교육은 나라와 민족 뿐 아니라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사의 양성과 헌신적 활동으로 국민의식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후 국가 개조의 목소리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는 중에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출범되고 특히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한국의 기독교 운동본부가 맡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국민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는 개인적 의식수준에 비해 공적 의식면에서 많이 변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나 국가 운영에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주인 의식 결여, 국민의 부정의식, 관료 우선주의, 황금만능주의, 요령주의, 기회주의, 무사안일주의, 출세제일주의, 약소주의, 현실타협주의, 냉소주의, 쾌락주의, 후진의식, 패배의식, 피해의식 등의 의식들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자유, 정의, 평화 가 숨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는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을 일으켜야!

자유로운 대한민국은, 사악하고 암적인 북한정권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시적인 위협입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와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할 의도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제안과 양보를 해도 북한은 우리를 침략해서 점령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정부와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진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을 맡아 두 나라가 되도록 평화를 유지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시민들은 양측의 국가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이므로 무력으로 북한을 병합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없으나 북한의 목표는 김씨일가를 중심한 노동당 세력의 계속 집권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정부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충분한 군사적 역지력이 필수적입니다. 한미동맹을 비롯한 이웃나라들과도 긴밀한 외교를 통해 북한의 침략전술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통일을 논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낮게 만들 길을 모색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주민들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일도 거리낌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에서 펼쳐는 의식개혁 운동을 필자는 세 가지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의식개혁 운동은 애국애족 운동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동기와 목표 그리고 방법만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직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애국인이요 애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맑은 양심이 회복될 때 자신에게 진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의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 ...중략...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로움의 존재만으로도 북한 공산 독재국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법치국가인 우리는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법 집행의 최일선에서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신뢰도가 현재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있고, 경제 신뢰를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이들은 14%에 미치지 세계18개국 평균41%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되어 법과 질서를 바로 지키면 2030년에 G7에 진입하고 종합국가지수 5위로 국가 신용도도 최상위

권에 들어간다는 서울대 평화연구원의 발표는 법과 질서 지키기 국민운동을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기독교를 갱신, 부흥케 하는 운동입니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복음과 물질을 세계에 나누어 주는 운동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배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빈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여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을 돕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고취할 때가 된 것입니다...중략

교회지도자들이 회개하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이 회개하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재 상태를 필자는 말기암환자의 상태로 진단해 본다면 억측이라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소위 지도자급에 속해 있다고 자임하고 있는 이들이 한국교회를 이토록 어렵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지도자가 그리워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출애굽대행진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두려워했고 의심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기 정당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지도자에게 비자금이나 자기 재산이 왜 필요하며 가짜학위, 시간과 물질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골프와 높은 자리의 명예와 거짓말이 왜 필요합니까? ...중략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을 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할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인 불신앙, 불의, 불충의죄를 멸하고, 소욕을 버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배려하고,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별을 멸해야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21세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교회는 건물이나 교인숫자만 자랑치 말고 내적 성숙을 지향하고 다음세대를 위해 찢어 놓은 교회를 다시 연합하고 복음 확장을 위해 인터넷과 메스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양성해야 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감당도 해야 합니다...중략 **지도자는 초자연적 지도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하되 '나는 섬기려 왔노라'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히 또 겸손히 그리고 더 겸손히 섬기는 종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베푸시던 은혜를 지연시키거나 보류시키지 않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동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피땀 흘린 기도를 함께 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

1월 5일(월)~10일(토) 새벽 5시 / 강사: 박노철 담임목사
주제: "성경에 나타난 서원들"(시 50:14-15)

새해맞이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5일(월)부터 10일(토)까지 열린다. 한 해를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금년에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서원들"(시 50:14-15)을 주제로 성경에 나타난 서원들을 살펴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서원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메시지를 박노철 담임목사가 전한다. 새해 1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온가족이 참석하여 은혜 받는 특별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15 청지기수련회 개최

1월 6일(화) 예배위원회로부터 시작 / 특별새벽기도 후

2015년도 청지기수련회가 1월 6일(화) 특별새벽기도회 후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예배위원회로부터 시작된다. 각 위원회에 소속된 섬김위원들은 청지기수련회를 통하여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섬김위원들의 참여를 기도한다.

각 위원회의 청지기수련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예배위원회 : 1월6일(화) 101호
- 전도위원회 : 1월7일(수) 101호
- 교구위원회 : 1월8일(목) 101호
- 선교위원회 : 1월9일(금) 101호
- 교육위원회 : 1월10일(토) 101호
- 찬양위원회 : 1월10일(토) 501호
- 새가족위원회 : 1월10일(토) 603호
- 관리위원회 : 1월10일(토) 503호

제191회 북한구원기도회 열려

1월 5일(월) 오후 7시 / 서울교회

『제191회 북한구원기도회』가 1월 5일 오후 7시, 서울교회에서 열리며, 6시 45분부터 찬양의 시간이 시작된다.

북한구원기도회는 2004년 6월부터, 북한을 향한 복음 전파와 북한주민들의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부터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한 기도회가 현재 191회를 맞이하기에 이르렀다.

2014년부터 각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북한에서 억압받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 속히 남북이 통일 되도록 순회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의 라히프찌히 성니콜라스교회에서 매주 열린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는데, 한국의 북한구원기도회가 대한민국 자유통일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2015년 전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1월 14일(수) / 수여식: 2월 1일(주) 찬양예배시간에

서울교회 장학회(회장 안인호 장로)는 2015년 전반기 장학생선발을 위한 장학생추천을 오늘부터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신대원생, 대학생, 교역자·직원·선교사 자녀, 극빈자, 장애인, 고등학생이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평균B이상), 본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 혹은 교회학교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 혹은 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1월 14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5년부터는 제출서류에 **재정상태확인서(건강보험납입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선발토록 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 제출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새해맞이 온가족 성경통독대회

범위: 여호수아~열왕기하, 마태복음
일시: 2015년 1월 15일(목)~16일(금)
오전 9:30 ~ 오후 5:00

2015년을 맞아 새해맞이 온 가족 성경통독대회를 1월 15일(목)~16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101호(웨스트민스터홀)에서 갖는다. 성경통독범위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이다. 회비는 1만원이며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의 참가 바란다.

12월 성경통독자 시상

- 〈성경 영어필사〉 1명 (12교구) 주영도 집사
- 〈3독〉 1명 (16교구) 하영수 장로
- 〈2독〉 1명 (13교구) 김성미 집사
- 〈1독〉 4명 (3교구) 배재송 집사, 임분도 권사 (5교구) 김혜연 집사 (12교구) 노문환 장로

새로운 어린이 찬양예배 시작

꿈나무 영어 성품 스쿨을 도입한 어린이 찬양예배가 이번 주일부터 시작된다.

- 대상: 전 연령 어린이 / 시간: 4시 - 6시
- 장소: 701호

파리크라상 빵 무료 제공

파리크라상에서 오늘부터 매일 2회 마가다락부, 사랑부, 에바다부, 디아스포라부에 무료로 빵을 제공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월4일(주) 섬김의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1월5일(월) Save NK 월례기도회 설교를 한다. 1월6일(화) 국민운동 정적운동 임원회에 참여한다. 1월7일(수) 메리디안 매니지먼트(주) 신년감사예배설교를 한다. 1월8일(목) 한장총 신년하례회 격려사를 한다.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야교회 뱌뵈전도회(1.4) 모세선교회 루디아전도회(1.11)
- 금주의 식사 제공 : 신용식 장로 김신영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중에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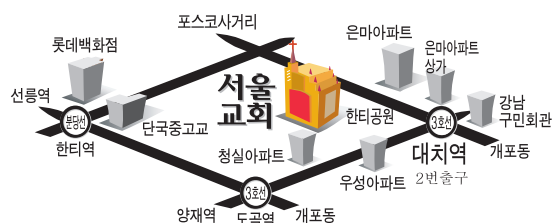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5년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한해가 되도록
2. 새해맞이 전교인특별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드리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3. 1월에 있는 각 위원회 청지기 수련회에 모든 섬김위원들 참석하여 꼭 필요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